영광군 해상풍력 발전 날개 달았다

국회 '에너지 3법' 통과 추진 동력 365MW 규모 발전단지 착공 준비 예타 면제 등 행정절차 병목 해소

국회에서 '에너지 3법' 이 통과되면서 영광군의 해상 풍력과 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동력을 얻 게 됐다. 정부 차원의 입법 지원에 힘입어 영광군은 에 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지역으로 도약할 준비 를 마쳤다.



장세일 영광군수

최근 통과된 '에너지 3법'은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확충법) ▲8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을 말한다.

특히 영광군은 '해상풍력 특별법'과 '전력망 확 충법'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며, 해상풍력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영광군은 이미 낙월해역 일원에 총 365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사업자들이 빠르면 2026년 상반기 상업운전을 목표로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상풍력특별법'의 통과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등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다. 그동안걸림돌이었던 행정 절차의 병목이 해소되면서, 대규모 사업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수 있게 됐다.

또 '전력망 확충법'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송전망 확충을 책임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발전량을 감당할 송전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 내 대형 발전단지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통과로 영광군의 해상풍력 전력망 연계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



두산중공업이 영광군 백수읍 국가풍력실증센터에 설치한 8MW 해상풍력발전기 전경. 〈두산중공업 제공〉

으며, 이는 곧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에너지 3법 통과는 우리 군에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특히 풍력 특별법으로인허가 장벽이 낮아지고, 전력망 확충법을 통해송전 문제까지 해결되면 영광의 해상풍력 사업은전국 최고의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 구체화 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발생한 이익을 군민과 나누 는 '햇빛·바람 소득' 모델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설계에 착수했다.

이 모델은 단순히 수익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지역주민이 직접 발전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 형태의 참여 구조도 함께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에너 지 수익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 침이다.

영광군은 또 낙월 해상풍력 외에도 총 6곳의 해 상풍력 사업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잠재 용 량은 4GW를 웃돈다.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 클러 스터와 수소 산업 클러스터도 유치 중으로, 재생 에너지 생산과 활용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융합 산 업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 3법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영광 군처럼 풍부한 해양자원을 가진 지자체가 이 기회 를 살린다면, 국가 에너지 전환 전략의 중요한 주 체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영광군은 향후 ▲낙월 해상풍력단지 본격 추진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개발 ▲기본소득 도입 기반 마련 ▲청년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송전망 확충에 따른 투자 확대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에너 지 전략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수영재활운동 프로그램

11월까지 매주 2차례 운영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무안군스포츠파크 실내수영장에서 수중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수영재활운동은 물을 이용한 재활운동의 하나로 수중운동과 재활을 결합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물속에서 저항·이완운동, 천천히걷기, 자유수영 등을 통해 체력을 높일 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을

매주 2차례 운영되는 수중재활운동 프로그램은 물리치료사의 지도로 12명이 참여하며, 장애인별 수중운동에 대한 수행능력을 진단하여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영장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 2회 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성남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이용 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진도군, 모든 공용차량에 소화기 선제적 설치

차량 화재 발생 시 초동 진압

진도군이 공용차량에 대한 화재 예방을 위해 공 용차량 153대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했다.

설치 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차 등 진도군의 모든 공용차량이며, 소화기는 운전자와 탑승자가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또는 조수석에 설치했다. 〈사진〉

또 최근 전국에서 전기차 화재 등 차량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진도군은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진도군은 공용차량뿐만 아니라 민간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설치를 독 려하는 등 차량 화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예측하기 어렵고



초기 진압이 중요하므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필수적"라며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신안군 흑산도 동백의 섬 선포…45만 그루 자생

30만평에 1억 5000만 송이 장관

신안군이 지난 16일 흑산면 상라산 정상에서 '동백의 섬'선포식을 가졌다. 〈사진〉

흑산도 동백은 30만 평의 면적에 45만 그루가 자생하며 겨울에서 봄까지 1억 5000만 송이 동백 꽃 봉오리가 피어올라 장관을 이룬다.

이번 선포식은 흑산도 동백나무의 우수한 생태 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다. 신안군 1섬 1정원 정책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동백의 섬' 조성 사업은 동백나무 군락이 이루는 자연경관의 보존과 이를 이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를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김정혁 '동백의 섬' 만들기 추진 위원장은 "흑산 도가 한 송이의 동백꽃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주 민 모두가 함께 동백의 섬을 만들어가겠다"고 말 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군, 35억 들여 조림·숲 가꾸기 본격 추진

105ha에 황칠 등 18만 그루 식수

완도군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35억원을 들여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을 본격추진하다.

조림 사업 규모는 105ha이며 황칠 특화 조림 20ha, 섬 지역 산림 가꾸기 25ha, 경제수 조림 50 ha, 산림 재해 방지 조림 10ha이다.

지역 고유 난대 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와 황칠 나무, 동백나무 등 18만2천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완도는 생태기후와 지리적 여건이 황칠나무 생 장에 적합해 국내 황칠 천연림이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등 국내 제1의 황칠 주산지이다.

숲 가꾸기 사업도 펼쳐진다.

조림지 사후 관리를 위한 풀베기·덩굴 제거 (570ha)와 어린나무 가꾸기(70ha), 공익 숲 가꾸기(120ha), 산불 예방 숲 가꾸기(120ha) 등이 있다.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양질의 목재 생산과 산불 ·산사태 재해 예방, 탄소 흡수, 목재 산업 용재 활 용 등 공익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